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총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2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동물번식생리연구소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메일의 내용은 형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 보였다. ‘필자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엔 아주 작은 규모의 연구소에서 필자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같은 형식의 메일이 왔고, 호기심에 답신을 보냈더니 곧바로 화상통화 제의가 들어왔다. 몇 번의 화상통화를 통해 UAE의 로열페밀리가 개 복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필자를 초청해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UAE 정부의 첫 초대에서 필자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연구소는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연구소 건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만 날리는 황량한 곳에 지어져 있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하고 연구소에 들어선 순간, 연구소 내부의 시설은 생각보다 잘

‘알.쓸.신.잡’ 두바이

갖춰져 있었다. 연구 인력도 전문 분야 박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현재는 우수한 품종의 낙타 번식과 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필자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원 교환 및 수행 내용에 관해서 협약을 맺고, 지난해 6월에 연구원을 3개월간 파견해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 이메일을 통해 그들과 접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들은 일이 결정되기까지 무척 엄격한 속도로 연구비를 투자했고, 복제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여류박학 동안 그들의 연구소를 방문해 개 복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두바이를 포함한 UAE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문화는 참 특이하다. 어떨 때는 매우 빠르게, 어떨 때는 아주 느리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필자가 느낀 중동 문화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인살라’ 문화다. 로열페밀리인 CEO는 내가 말을 끝낼 때마다 ‘인살라’라는 말을 주문을 외우듯 사용했다.

중동 문화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했던 필자는 그것이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다. 어떤 때는 다음날 만나서 토의하기로 약속하는 연구소에 오지 않았고, 실무를 총책임을 지고 있는 박사조차도 어

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CEO는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다. 그렇다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사에게 연락해도 CEO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중동의 ‘인살라’문화였던 것이다. 필자도 이처럼 어이한 가운데, 술한 무례함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주문처럼 외었던 인살라는 ‘신의 뜻이라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필자는 UAE 동물번식생리연구소가 처음에는 민간연구소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었다. 몇 번의 이메일이 더 오가고 했을 즈음에 그들과의 신뢰가 형성됐고, 이후 공식적인 문서들은 두바이 자빌 왕국(Zaabeel office)으로부터 발송돼 왔다. 이후 필자가 방문했을 때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나 행사들은 자빌 왕국의 명칭으로 이뤄졌다.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서는 외국의 연구자나 사업가와의 공식적인 루트는 왕실에서 모두 통제하고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80% 이상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시민들로부터 경제, 문화, 외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행위는 왕실이 주관한다.

또 하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UAE의 차량 번호판이다. 이 번호판에는 자신의 거주 지역과 다섯 자리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신분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세 자리 숫자 이내의 번호판은 왕실과 그 가족의 차량으로 번호가 그들의 서열을 알려주는 것

이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번호판은 네 자리이며, 외국인 차량의 번호판은 다섯 자리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가 방문했던 연구소의 CEO는 두 자리로 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꽤 지위가 있는 왕족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연구소 옆에 있는 그의 낙타 농장을 직접 보여 주기도 했는데, 연구소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넓이의 사막을 구획해 그 안에 500여 마리의 낙타뿐만 아니라 공작 숲, 기린 사파리, 인공 호수, 인공 숲, 사슴 사파리 등 많은 종류의 사파리를 갖추고, 심지어 자체 주유소까지 보유해 사막의 무릉도원과 같았다. 산유국 왕족의 위엄을 체감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였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기존의 경제·통상 관계에서 최근에는 보건, 교육, 신재생 에너지 등 포괄적 분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자 희망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들의 문호를 개방해 세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유력한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UAE의 경제적 지원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기술의 세계적 우위로 확보하면서 산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몇 년 전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참혹했다. 당시 교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사건은 책으로 표현되고 영화로 다루어지면서 장애 아동들의 인권유린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개봉한 영화 ‘1987’은, 교도관 한재동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로 인해 6월 항쟁의 기록제가 됐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태블릿PC가 매개가 됐지만 노승일씨의 용기있는 폭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

‘미투’ 운동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촛불’

다. 노승일씨가 녹음한 육성 테이프가 청문회장에서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세력의 몰락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내부의 부정과 비리, 반윤리적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공익 제보’라 한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래 공익 제보는 영국 경찰에서 동료의 위법과 비리 행위를 경계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 또한 한명의 용기 있는 정의의 호루라기로 인해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2018년 1월 29일 JTBC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검찰청 내부의 성추행을 폭로한다. 서 검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절대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둘째는 피해자가 종교에 귀의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셋째는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결혼한 가정인 있는 상황에서 검사 신분으로 8년 전 추행당한 일을 폭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터다. 인터뷰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나도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문화, 예술, 연예, 종교, 언론계 등 성역이 없이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다. 더욱이 종교계의 미투 폭로는 충격적이다. 사회의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종교가 성추문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동안 전문직 성폭력 중 종교계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일부분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의 적폐가 해결이 될 수 있다만,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굶은 상처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이념과 정치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이나 삶과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용기 있는 제보자들 한명, 한명이 바로 우리 사회를 맑히고 밝히는 정의의 호루라기인 셈이다. 종교계에서도 이 일을 계기로 여성 인권 신장과 인간 존중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단 자체의 자정 노력을 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에서 보듯, 종교에 귀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닌 피해당한 당사자들에게 진정 어린 응서를 구하는 것이 비로소 회개가 되고 참회가 된다 하겠다. 종교계에서도 자체에 종교 본연의 역할을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팔팔 끓다가 쉬 식어버리는 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관습이라는 커다란 괴물을 물리치고 공동체인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과제다. 다시 말해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성찰과 반성, 참화에 이어 평화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자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무엇보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그 역량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투 제보자들은 이 시대의 영웅인 것이다. 세상이 바뀌지기를 기다리지 마시라.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쉬운 일이다. 내가 바뀌는 것이 곧 세상이 바뀌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고

문화 예술 도시의 새 봄



우제길 서양화가·우제길미술관장

무술년 2018년도 어느덧 3월에 달는다. 누구나 한 해의 시작은 항상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다.

서울 나들이를 할 때 주로 지하철도를 이용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한 편의 시를 만나게 된다. 그 시를 음미하는 시간이 짧은 순간이지만 나름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

봄비는 승객들 사이에서 시를 나의 추상 작업과 연계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된다.

광주의 지하철도에서 시를 읽을 수 있어 행복했는데, 언젠가부터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이후 시를 만날 수 없어 아쉬움을 갖는다. 대신 50인치 TV모니터에서

시와 음악을 보며 들을 수 있고, 시를 낭송하는 차내 방송이 있지만 달리는 전철의 소음으로 잘 들을 수 없어 내 나름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우리들은 광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금년으로 제11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라는 세계적인 국제현대미술전시가 있으며,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 이후 굵직한 전시와 공연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한국화미술대전, 안방울국악제, 아트광주18 등 문화 행사와 전시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자못 문화도시 광주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관계 당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물론 광주 시민의 높은 예술적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다 더 성숙한 문화 예술 도시의 시민 자세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닐까하고 생각하며, 이제 문화 예술 도시의 위상을 갖춰가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감히 해 본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주요 예술인들의 대표작이나 예술인이 추천한 좋은 작품들을 그들이 살며 작업할 마을 입구나 집 때문 등에 예쁘게 복사해 게시하거나 설치한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작가의 특징, 혹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을 보다 밀접하게 연관시킨 내용의 디자인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디자인과 설치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강원도 양구군에서 개최한 ‘박수근(1914~1965)을 읽었다’ 예술 프로젝트는 군사도시 양구군을 예술 숨결을 넣은 거리 미술관으로 변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적용해 광주는 국제현대미술의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화가, 도예가, 소설가, 시인, 고전무용가, 사진가 등 예술가가 있으며 이웃인 그들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알고 자녀들도 배울 수 있고

룩 말이다. 광주에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5곳의 사립미술관, 69곳의 갤러리, 대인시장의 예술장터 등 다양한 문화 마당들이 있다. 그리고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 외재로의 의재미술관, 전통문화관, 우재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국문미술관 등에서 고전과 현대미술 전시 등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동네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정작 이웃에서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다.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동네 이웃으로서 친근하게 느끼고 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제안해 본다.

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모인이나 나들이에서 한 편의 시 낭송이라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은 어떨까? 전시작품 이야기며 음악회, 뮤지컬 등을 감상할 수 있고, 그 뒷이야기들을 가져본다면 어떨까? 만일 푸른 하늘을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났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렇듯 커다란 느낌을 안겨줄 수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광역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새봄과 함께 새로운 것을 크게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완도에서 또 어선 전복...여전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듯 보였으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완도에서 7명의 인명 피해가 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지만 적정 시간 내에 구조함이 도착하지는커녕, 사고 발생 사실이 지나가던 선박의 신고를 받고서야 파악하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지난 28일 오후 완도 해상에서 어선 ‘근룡호’가 전복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이 실종됐다. 근룡호 선박위치 식별장비(AIS)의 신호는 이날 오후 1시 16분을 마지막으로 완도해상 교통관제센터(VTS)에 감지된 이후 끊겼다. 즉 당시 침몰 사고가 발생했지만 발견은 되지 못했고, 인근을 순항하던 선박의 신고로 3시간이 지난 4시 28분에 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신고 접수 이후 1시간 20분 만인 오후 5시 47분에 경비함정이 도착해 수색을 벌였고, 오후 6시 31분 해경구조대까지 가세했으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

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 해경 등이 구조에 나섰지만 거센 풍랑 등 기상 사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선박 수색을 제대로 못한 탓에 사고 발생 18시간이 지난 1일 오전 7시32분에서야 시신 2구를 수습했으며, 5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선박 위치 식별 장비의 신호가 끊긴 사실, 즉 침몰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해경 교통관제센터(VTS)에 감지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규상 교통관제센터가 선박의 운항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관계 대상은 선체 길이 40m 이상의 선박이기 때문이다.

40m 미만의 선박은 워낙 많이 물리적으로 관계가 힘들다는 게 해경의 답변인데 하지만 해상에서 인명 피해가 나는 선박 사고는 대형보다는 주로 중 소형 선박이 많다. 따라서 선박 운항을 추적·관리하는 관계 대상 범위를 확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앞으로 한 달이 운명 가른다

노사가 진통 끝에 경영정상화 방안(자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사태가 일단 최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호타이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이 채무상환 한 달 유예 결정으로 화답했는데 환영할 일이다.

금호타이어가 한 달이란 시간을 벌게 된 것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채권단과 노조가 법정관리라는 절벽 앞에서 서로 한발 양보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최대 관건은 노사가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과 해외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노조의 시각차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채권단은 자구안 제출을 전제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기로 하고 자구안 제출 마감일을 이를 넘기면서도 노조 측과의 조율에 나섰다. 노조 측 해외 매각 불가라는 입장에서 물러나 노조와 합의 후 시행하는 쪽으로 양보했다.

채권단과 노조 측의 양보로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신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 달이란 시간만 벌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다. 당장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자구안이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무급 휴무제 및 임금피크제 시행과 복지 후생을 크게 줄인 자구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해외 매각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기로 한 대목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한 달 후 또 다시 정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채권단과 노조가 한발 더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점 도출에 나서야 한다. 채권단은 GM사태를 거울로 삼아 해외 매각만 고집하지 말고, 노조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최영미 시인이 시에서 지목한 ‘괴물’이 문단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으로 드러난 이후 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라면 나라 망신당할 뻔했다’는 탄식까지 나왔다. 일부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작품을 애독했던 독자 중에 충격을 받은 분들에게 한 가지 팀을 드린다.

우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학 교수들이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대화할 것 같은 하기에 교과서에서 그대

가? 핵물리학자들이 휴식 시간에 퀴크에 대한 과학적 대화를 나눌 것 같은가?...대

자들은 여론과 별개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독자가 작품과 작가의 인격이나 삶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개인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별개로 본 첫 출발은 도종환 시인이었다. 절절한 망부가(亡婦歌)인 ‘집시 꽃 당신을’ 읽고 감동이 워낙 컸기 때문 일 것이지만 훗날 전해들은 도 시인의 재혼 소식에 적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작품을 사랑한다고 해서 문인의 삶까지 작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80년대 ‘홀로서기’란 시로 대중을 사로

괴물을 대하는 법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보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